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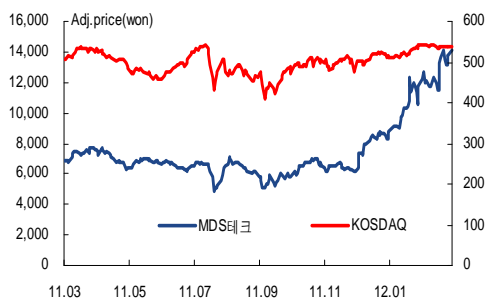
2012.3. 20 Analyst : 김현석 ☎3770-5039

Rating Buy(유지)
Target Price 20,400 원
Previous 13,600 원

주가지표

KOSPI(03/19): 2,047P
KOSDAQ(03/19): 540P
현재 주가(03/19): 14,050원
시가총액: 1,220억원
총발행주식수: 868만주
120일 평균거래대금: 104억원
52주 최고주가: 14,050원
최저주가: 4,900원
상대수익률 (1개월): 20.2%
(6개월): 102.5%
유동주식비율: 48.3%
외국인지분율(%): 16.36%
주요주주: 덕인베스트먼트 외 13 인 (45.3%)

상대주가차트



●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0,400원으로 상향

MDS테크에 대해 기존 13,600원에서 20,400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함. 목표주가는 2012년도 12개월 Forward 예상 EPS, 1,572원에 동종업계(한글과컴퓨터, 유비벨록스, 인프라웨어)의 평균 PER 13배를 적용해 산정함.

1) 2012년부터 자동차 산업 임베디드 SW 부문이 잇따른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 2) 이익률이 증가로 실적 상승, 3) 자회사 가치 부각 4) 타 산업의 임베디드SW 투자가 점차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시 성장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한 주가 재평가 시점으로 판단됨.

● 대기업들의 잇따른 자동차 SW 투자

이전까지 자동차 SW 부문 투자가 낮았던 주된 이유는 엄격한 안전규격 및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인해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임. 하지만 타 산업 대비 자동차 산업과 IT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편의성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자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임. 또한,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매출원의 50%를 전자제어시스템 부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대기업들의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어장치시스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Q Preview: SW툴 판매 증가로 이익률 예상치 상회할 전망

동사의 1분기 K-IFRS 별도 기준으로 예상실적은 매출액 135억(YoY+18.4%), 영업이익 15억(YoY+650%) 달성이 전망됨. 우선, 1분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객사의 SW 수요가 낮아 비수기이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시스템 반도체) 부문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 13억 보다 2억 이상 증가한 15억 규모가 예상되는데 이는 자동차 및 산업용 SW 툴 마진율이 기존 주력산업(모바일 및 정보가전) 대비 당사의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즉, 최근 대기업의 자동차 및 산업용(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확대로 동사의 이익률은 분기가 지속될수록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결산기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순이익 (억원)	EPS (원)	P/E (배)	P/B (배)	EV/EBITDA (배)	영업이익률 (%)	ROE (%)	ROIC (%)
2009A	555	70	57	57	601	14.5	2.2	7.4	12.7%	16.4%	37.2%
2010A	621	82	78	78	868	16.1	1.3	5.2	13.2%	17.0%	37.8%
2011F	610	80	88	88	1,080	13.0	1.1	3.9	13.1%	15.6%	31.4%
2012F	715	126	129	129	1,572	9.3	0.9	2.1	17.7%	19.6%	48.0%
2013F	858	178	158	158	1,937	7.2	0.8	0.8	20.8%	20.4%	63.8%

자료: MDS테크,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2010년 이전 실적 K-GAAP 기준, 2011년 이후 실적 K-IFRS 기준



▣ Valuation: 목표주가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0,400원 ‘상향’

MDS테크의 목표주가를 기존 13,600원에서 20,4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산정방법은 2012년도 12개월 Forward 예상 EPS, 1,572원에 동종업계(한글과컴퓨터, 유비벨록스, 인프라웨어)의 평균 PER 13배를 적용했다.

투자포인트는 1) 2012년부터 자동차 산업 임베디드 SW 부문이 잇따른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 2) 이익률이 증가로 실적 상승 3) 자회사 가치 부각 4) 타 산업의 임베디드SW 투자가 점차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시 성장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 주가 재평가 시점으로 판단된다.

투자포인트는

1. 대기업의 자동차 SW 투자 본격화
 - 올해부터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어시스템(ECU)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
2. 자동차 SW(반도체 및 전자제어시스템) 개발단계부터 이익 발생
 -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SW 개발툴 수요 발생으로 이익 발생 예상
3. 자회사 가치 부각
 - 2011년도 매출액 96억, 영업이익 13억, 2012년 매출액 100억, 영업이익 15억 전망
4. 이제는 성장주로 재평가 관점 접근
 - 저평가 메리트가 아닌 성장주로서 재평가 될 시점

▣ 대기업들의 자동차 SW(임베디드 시스템) 투자 - 제대로 불 붙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각각 자동차 반도체
부문 투자 발표

지난주, 국내 1,2위 그룹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은 각각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 부문 투자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09년 지식경제부 과제로 개발해온 차량용 반도체 부문(비메모리 반도체)을 올해 말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자제어시스템(ECU) 강화를 위해 2005년 독일 지멘스社와 합작하여 설립한 카네스의 사명을 변경해 가칭 ‘현대차전자’의 출범을 발표했으며, 16일 인력확충과 사업 확장을 위한 일환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전까지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차량 반도체 부문의
투자는 미비했음

이전까지 차량용 반도체(전자제어 임베디드 시스템) 부문의 투자 비중이 낮았던 주된 이유는, 자동차내 핵심반도체인 엔진제어칩이나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사시용 칩, 에어백에 사용되는 칩 등의 경우 1) 엄격한 안전기준을 요구하였으며, 2) 다양한 차종 및 전자제어시스템의 종류로 인해 다품종소량생산 체제였고, 3) 투자기간 대비 이익률이 낮다는 단점으로 인해 모바일 반도체 시장 대비 성장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반도체 개발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고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기여도가 큰 사업이었던 반면, 자동차의 경우 차종마다 탑재되는 반도체의 종류가 다르며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도체 개발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어 투자 대비 이익률이 저조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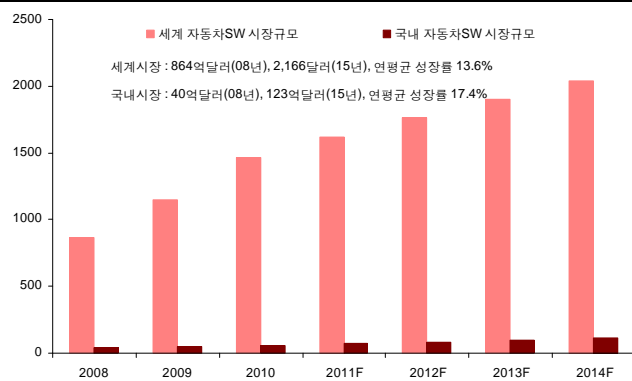
최근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자동차
IT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하지만,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타 산업 대비 자동차 산업과 IT분야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편의성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자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ISO 26262 국제 표준
확정으로
전자제어시스템
중요성이 산업 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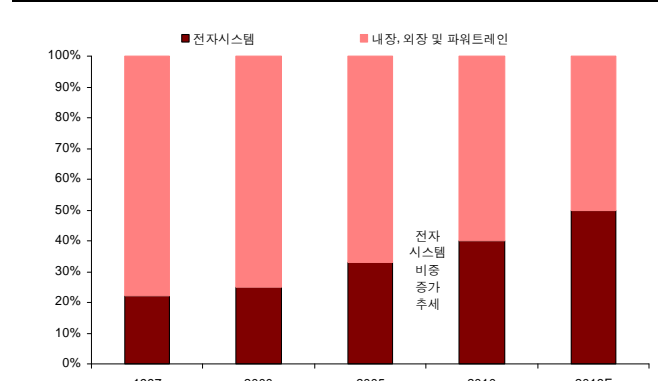
또한, 최근 6년간의 개발 끝에 국제표준으로 확정된 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 표준 'ISO 26262'는 이미 글로벌 자동차업체인 BMW, 다임러, GM, 보쉬 등과 주요 부품제조사들에서 이전부터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되어 왔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기술 개발 초기단계로 기업과 정부는 표준규격 적용을 위해 빠르게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IT융합이 가속화 됨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매출원가의 50%를 전자제어시스템 부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대기업들의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어장치시스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자동차 SW 시장규모 추이



자료: ITTA(2009)

[도표 2] 자동차 내 전자제어시스템 비중 추이



자료: 현대 오토에버 자료 인용

■ 왜 MDS 테크 인가?

해외 SW를 독점판매권
보유를 포함 광범위한
개발을 보유로
시장경쟁력 1위

동사는 지난 수년간 해외원천기술 보유업체의 제품을 국내시장에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Lautervach社 및 dSPACE社 등 다양한 해외 자동차 SW 개발툴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 밖의 자동차 SW 개발영역에서 필요한 개발툴 기술을 제휴 또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풍부하게 확보하면서, 광범위한 SW개발툴 및 SW솔루션 제공을 통해 독보적인 국내 1위 시장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SW개발툴 제공 및
SI 교육 등 토탈솔루션
공급 예정

향후 동사는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변화에 따라 1) 전자제어시스템 SW 개발툴 제공, 2)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I 제공 및 3) Automotive SW 전문 교육 진행을 통해 자동차 임베디드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으로 토탈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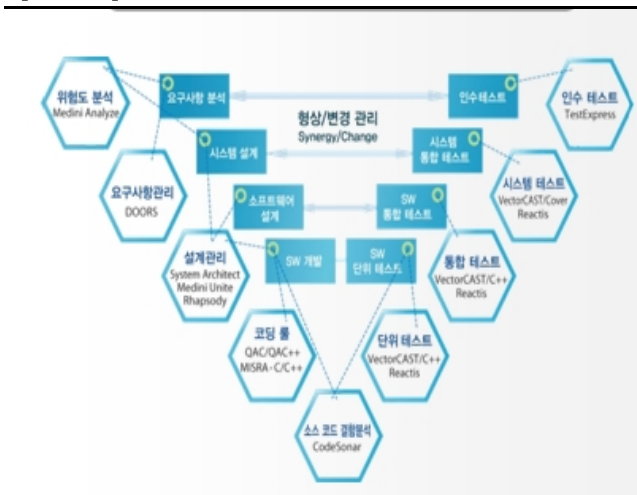
자동차 SW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개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매출 발생 전망
(단발성이 아닌 장기
성장 예상)

따라서 자동차용 비메모리 칩 및 전자제어시스템(ECU)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시스템 반도체 및 ECU SW 개발 토탈솔루션의 원천기술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동사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초기 기업들이 SW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SW 개발툴이 필요한 만큼 동사가 보유한 다양한 SW 개발툴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전자제어 장치(ECU)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능 안정성 규격인 'ISO 26262' 표준은 자동차내 전자제어장치(ECU)의 급속한 증가와 네트워크화로 인해 전자 제어 시스템이 복잡해 지면서 개발 초기에서부터 임베디드 시스템 적용이 필수적 요구 사항이며 SW 프로세싱이 준수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SW 개발은 향후 5~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장기 성장 측면에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타 산업 대비 SW개발툴
수요의 빠른 증가와
고가인 점을 고려 시
이익률 상승 예상

무엇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현대차전자'의 설립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를 대부분 인력확충에 투자함에 따라: 1) 주고객인 자동차제조사 및 부품사의 SW인력이 현재 700여명 선에서 대규모 확대가 예상돼 1인당 SW 개발툴 수요의 가파른 증가와 2) 개발자 1인당 사용하는 전장 개발툴의 가격도 휴대폰 개발툴과 비교 시 2.5~5배정도 고가인 점으로 고려할 시 동사의 실적상승폭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3] SW 개발단계



자료: MDS 테크

[도표 4] ISO 26262 준수사항



자료: MDS 테크

■ 1Q Preview: 고가 SW 톨 판매 증가로 이익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

2012년 1분기
매출액 135억, 영업이익
15억 전망 기존 13억
대비 15% 증가 예상

동사의 1분기 K-IFRS 별도 기준으로 예상실적은 매출액 135억(YoY+18.4%), 영업이익 15억(YoY+650%) 달성이 전망된다. 우선, 1분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객사의 SW 수요가 낮아 비수기이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시스템 반도체) 부문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 13억 보다 2억 이상 발생한 15억 규모가 예상되는데 이는 자동차 및 산업용 SW 톨 마진율이 기존 주력산업(모바일 및 정보가전) 대비 당사의 기존 추정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대기업의 자동차 및 산업용(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확대에 의해 동사의 이익률은 분기가 지속될수록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연간 예상
매출액 715억 영업이익
126억 전망
자동차 및 산업용
수요증가로 마진을
예상치 상회 전망

이와 같은 자동차 및 산업용 SW 톨 마진율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기존 추정치인 2012년도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 715억 영업이익 116억 부문에서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상향 달성이 예상돼 연간 영업이익률은 17.6% 수준이 예상된다. 현재, 대기업들의 자동차 SW 부문의 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기존 추정대비 추가 매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도입단계인 만큼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예상돼 올해보다 2013년부터 상승폭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표 5] MDS 테크 분기 및 연간 실적추정 변경

항 목 (단위:억원)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1Q12	2012E	1Q12	2012E	1Q12	2012E
매출액	135	715	135	715	-	-
영업이익	13	116	15	126	15.3%	8.6%
영업이익률	9.6%	16%	11%	17.6%	-	-
당기순이익	12	118	16	129	33%	9.3%
당기순이익률	8.8%	16.5%	11.8%	18.04%	-	-

자료: MDS 테크,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K-IFRS 별도기준 분기별 매출 추이

	2010	2011E	2012E	1Q11	2Q11	3Q11	4Q11	1Q12	2Q12	3Q12	4Q12
매출액	620	610	715	114	157	143	196	135	184	191	205
정보가전	146	167	171	44	38	41	46	33	44	45	49
자동차	83	142	220	20	33	34	56	40	57	59	64
산업용	157	107	126	21	37	20	27	26	32	33	35
모바일	131	105	103	17	21	28	40	19	26	28	30
국방항공 교육/기타	103	89	95	12	28	20	27	17	25	26	27
영업이익	82	80	126	2	21	23	34	15	33	36	42
영업이익률	13%	13%	17.6%	2%	13%	16%	17%	11%	17.9%	18.8%	20.4%

자료: MDS 테크,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 자동차 이외에도 잠재적 성장 보유 중

SW개발 툴 뿐만 아니라
자체 원천기술인 국내
유일의 OS NEOS 보유

동사는 단순히 해외업체 기술의 공급 계약뿐만 아니라 자체 원천기술로 NEOS OS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기술개발력 또한 독점적 위치에 있다. NEOS는 개발기간만 10년이 걸린 고등항공기(T-50) 전용 국산 OS로, 2008년 국제 항공 SW 인증표준인 DO-178B 인증을 획득하면서 기술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 받으면서 국내 1위 개발역량을 입증하였다.

국방/항공 및 철도 산업
적용 준비 중
향후 신성장 동력 부각

물론 NEOS는 수많은 검증과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인식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를 주관으로 국방/항공 및 철도 산업에서 NEOS 적용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동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스톡옵션, 개별주식옵션 등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사는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M&A 업무수행,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되었으며, 홈페이지 공표 이전에 특정기관에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석)

●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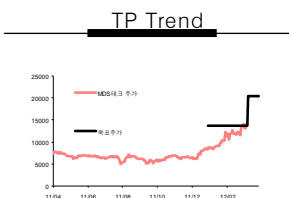
Buy(매수) 향후 6개월간 15% 이상 상승 예상
Hold(보유) 향후 6개월간 +15~ -15% 내 변동 예상
Reduce(축소) 향후 6개월간 15% 이상 하락 예상

※ 당사의 투자의견은 2004년 10월 1일부터 Buy, Hold, Reduce의 3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의견 및 목표가 등 추이

종목명	코드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
MDS 테크	086960	2012. 1. 9	BUY(신규매수)	13,600 원
MDS 테크	086960	2012. 1. 30	BUY(유지)	13,600 원
MDS 테크	086960	2012. 2. 8	BUY(유지)	13,600원
MDS 테크	086960	2012. 3. 20	BUY(유지)	19,700 원

이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요약 재무제표

(십억원, %, 원, 배)

Income statement	2009A	2010A	2011F	2012F	2013F
매출액	56	62	61	72	86
매출원가	35	39	38	44	53
매출총이익	21	23	23	27	33
매출총이익률 (%)	37.6%	36.9%	36.9%	38.4%	38.4%
판매비와관리비등	14	15	15	15	15
기타영업손익	0	0	0	0	0
영업이익	7	8	8	13	18
영업이익률 (%)	12.7%	13.2%	13.1%	17.7%	20.8%
조정영업이익	7	8	8	13	18
EBITDA	9	10	10	14	20
EBITDA마진율 (%)	16.1%	16.1%	17.1%	19.9%	23.4%
조정EBITDA	9	10	10	14	20
순금융손익	0	2	3	3	2
이자손익	0	1	2	2	2
외환관련손익	0	0	0	0	0
기타영업외손익	0	0	0	0	0
총속기업및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7	10	11	16	20
당기순이익	6	8	9	13	16
당기순이익률 (%)	10.3%	12.6%	14.5%	18.0%	18.5%
지배지분순이익	6	8	9	13	16
비지배지분순이익	0	0	0	0	0
총포괄이익	6	8	9	13	16

주 : 조정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매비

Balance sheet	2009A	2010A	2011F	2012F	2013F
유동자산	31	35	44	57	73
재고자산	3	2	2	2	3
단기금융자산	14	18	22	25	3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	11	11	13	15
현금및현금성자산	3	1	7	14	23
비유동자산	22	29	25	23	21
유형자산	6	6	5	4	3
무형자산	8	7	7	8	6
투자자산	7	14	12	11	11
자산총계	53	64	70	80	95
유동부채	14	10	9	9	9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	8	7	7	7
비유동부채	1	1	1	1	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15	11	10	9	10
지배주주지분	38	53	60	71	85
자본금	5	5	5	5	5
자본및이익잉여금	52	49	56	67	81
기타자본	-19	-1	-1	-1	-1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38	53	60	71	85

Cash flow statement	2009A	2010A	2011F	2012F	201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	5	10	14	17
당기순이익	6	8	9	13	16
현금유출이없는비용및수익	2	2	3	3	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1	1	1	1
무형자산상각비	1	1	1	1	2
기타	0	0	0	1	2
영업활동관련자산부채변동	1	-5	-1	-1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	-2	0	0	0	0
재고자산의감소	-1	1	0	0	0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4	-7	-1	0	0
기타	-1	1	0	0	0
이자,배당,법인세 및 중단현금흐름	0	0	-1	-2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	-12	1	0	-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8	2	2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	-1	0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0	0	1	2	0
단기금융자산의감소(증가)	-9	-5	-3	-4	-5
기타	1	1	1	1	1
이자,배당,법인세 및 중단현금흐름	0	0	0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	8	-1	0	0
장기차입금의증가(감소)	0	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증가(감소)	0	0	0	0	0
기타	1	10	2	2	2
이자,배당,법인세 및 중단현금흐름	-1	-2	-2	-2	-2
기타현금흐름	0	0	-7	-7	-5
현금의증가	1	1	3	7	9
기초현금	2	3	4	7	14
기말현금	3	4	7	14	23

Valuation Indicator	2009A	2010A	2011F	2012F	2013F
Per Share (원)					
EPS(당기순이익 기준)	601	868	1,080	1,572	1,937
EPS(지배순이익 기준)	601	868	1,080	1,572	1,937
BPS(자본총계 기준)	4,019	6,160	7,342	8,670	10,363
BPS(지배지분 기준)	4,019	6,160	7,342	8,670	10,363
DPS(보통주)	220	260	260	260	260
Multiples (배)					
PER(당기순이익 기준)	14.5	16.1	13.0	9.3	7.2
PER(지배순이익 기준)	14.5	9.4	7.3	5.0	4.1
PBR(자본총계 기준)	2.2	1.3	1.1	0.9	0.8
PBR(지배지분 기준)	2.2	1.3	1.1	0.9	0.8
EV/EBITDA (발표 기준)	7.4	5.2	3.9	2.1	0.8

Financial Ratio	2009A	2010A	2011F	2012F	2013F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4.6%	11.9%	-1.8%	17.2%	20.0%
영업이익증가율	35.5%	16.2%	-2.0%	57.5%	41.0%
EPS(당기순이익 기준) 증가율	49.0%	44.4%	24.4%	45.5%	23.2%
EPS(지배기준) 증가율	49.0%	44.4%	24.4%	45.5%	23.2%
EBITDA(발표기준) 증가율	23.8%	11.9%	4.5%	36.4%	40.8%
수익성 (%)					
ROE(당기순이익 기준)	16.4%	17.0%	15.6%	19.6%	20.4%
ROE(지배순이익 기준)	16.4%	17.0%	15.6%	19.6%	20.4%
ROIC	37.2%	37.8%	31.4%	48.0%	63.8%
ROA	11.9%	13.3%	13.2%	17.1%	18.1%
배당수익률	2.5%	3.2%	3.3%	3.3%	3.3%
안전성 (%)					
부채비율	39.9%	19.9%	16.0%	13.4%	11.6%
순차입금비율(자본총계 대비)	-43.5%	-35.7%	-47.3%	-54.8%	-61.8%
이자보상비율	234.7%	117.2%	114.8%	180.8%	255.0%

한양증권 점포현황

본 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한양증권빌딩	TEL : (02)3770-5000
도곡지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4-5 일양약품빌딩 3 층	TEL : (02)3462-9889
삼풍지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7 진일빌딩 4 층	TEL : (02)594-1131
강동지점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 주양쇼핑 4 층	TEL : (02)428-2211
송파지점	서울 송파구 송파동 121 한양APT 상가 2 층	TEL : (02)419-2100
행당지점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9-36 무학빌딩 3 층	TEL : (02)2294-2211
안양지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 3 동 360-17 동아뉴타운상가 B 동 3 층	TEL : (031)386-6666
안산지점	경기 안산시 고잔동 527-6 한양증권빌딩 2 층	TEL : (031)486-3311
시화지점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5 우리빌딩 2 층	TEL : (031)432-4545
분당지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8-3 효자촌프라자빌딩	TEL : (031)705-4141
덕소지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2-1 동산빌딩 5 층	TEL : (031)576-2211
인천지점	인천 남동구 만수동 39 만수프라자빌딩 1 층	TEL : (032)461-4433
부평지점	인천 계양구 계산 2 동 931-51 대진빌딩 3 층	TEL : (032)544-2211
김천지점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30-1 대영빌딩 2 층	TEL : (054)430-2211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분석담당자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분석담당자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의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게재,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